

추석연휴 등으로 디지털전자 수출은 1.7% 감소한 106.6억불

디지털전자, 日평균 수출 5.5억불로 최고치 기록

문의 | 산업자원부 디지털융합산업팀 02-2110-5676

■ 9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106.6억불, 수입은 0.5% 감소한 54.4억불로, 무역 수지는 3.0% 감소한 52.2억불 흑자 기록

◎ 수출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 2년 4개월 만에 감소로 나타났으나, 일평균 수출은 18.4% 성장한 5억5천만불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일평균 수출 : '06.9월(23.5일, 4억6천만불) → '07.9월(19.5일, 5억 5천만불)

- 칼라TV·백색가전 등 주요 품목의 실적 부진으로 가전(-20.6%)이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증가세 둔화로 전자부품(0.7%)도 포함세에 머물렀음

◎ 수입 또한 가전(-9.2%), 산업용전자*(-17.0%), 전자부품(0.5%)이 감소 및 포함세를 보이며 2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산업용전자 : 전자응용기기 및 계측제어분석기를 포함

〈2007년 9월 및 상반기 디지털전자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7년		2006년		
	9월	1~9월	9월	1~9월	
수출	전체 산업	29,546 (-0.4)	268,585 (12.8)	29,651 (20.9)	238,071 (14.7)
	디지털전자	10,659 (-1.7)	90,118 (7.8)	10,846 (18.3)	83,596 (12.1)
수입	전체 산업	27,060 (2.1)	255,952 (11.5)	27,637 (21.6)	229,477 (20.4)
	디지털전자	5,438 (-0.5)	48,755 (7.1)	5,466 (8.2)	45,527 (10.2)
무역 수지	전체 산업	2,486	12,633	2,014	8,594
	디지털전자	5,221	41,363	5,380	38,069



지난 1월 대구 H호텔 승강기문 이탈 사망사고 계기로
“체중 60kg 2명 돌진해도 문 안열리도록” 기준 강화

우리 승강기안전기준 국제표준 반영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팀 02-509-7291

- 지난 1월 대구 'H호텔'에서 승강기 문 이탈로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 이후, 이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되어 세계인의 승강기 안전도 지켜줄 전망이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1일부터 3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승강기안전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TC178)에서 우리나라가 승강기 문의 “이탈강도와 시험방법”을 제안하여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각국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종래의 EN(유럽표준) 기준과 같은 30kg의 하중을 정적으로 가하여 문의 변형유무를 확인하던 방법에서, 실제 충돌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가하는 방법도 병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 승강기 문의 이탈강도를 450J의 충격에너지로 정하였으며, 이는 중학생 2인(120kg)이 약 시속 10km로 돌진하여 부딪혀도 승강기 문이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2007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개막

국내외 최첨단 전기기기 제품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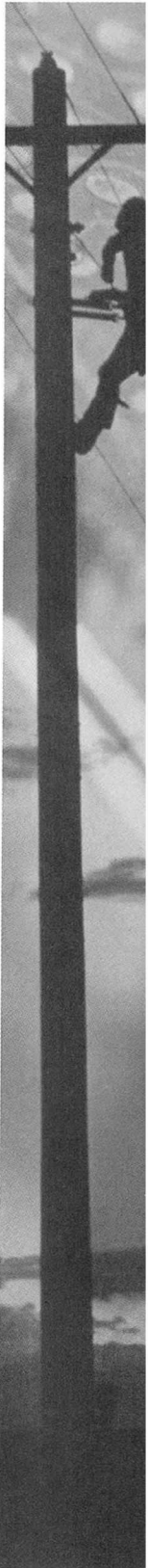
문의 | 산업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02-2110-5685

- 국내 유일의 전기기기 종합 전시회인「2007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7)」이 10월10일(수) 오전 11시 KINTEX(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막되었다.
 - * 주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전 등

- ◎ 4일간(10. 10~13) 계속되는 금번 전시회는 국내 191개 업체와 해외 8개국 15개 업체 등 총 206개 업체 (총 495부스)가 참가하며, 해외 바이어 660명을 비롯 1만5천명 이상의 참관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국내 업체 : 191개사
 -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 등 종합 전기기기 업체
 - 비츠로테크, 광명전기, 중원전기, 피앤씨테크 등 중소기업
 -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회사
 - * 해외(8개국) : 중국, 일본, 인도, 미국, 프랑스, 독일, 말련, 인도네시아

- 올해로 12회를 맞는 금번 행사는 '94년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로 발전 및 송배전 분야의 첨단제품들을 선보임으로써 국내외 업체들의 기술개발 수준을 가늠하고, 해외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특히, 올해에는 6개 발전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공동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장난 선로만 차단 ... 집안 전체 정전되는 일 없도록 KS 규격 변경

가정용 두꺼비집<주택용분전반> 새집 단장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02-509-7294~7

앞으로 '두꺼비집' 퓨즈가 끊어져 집안 전체가 정전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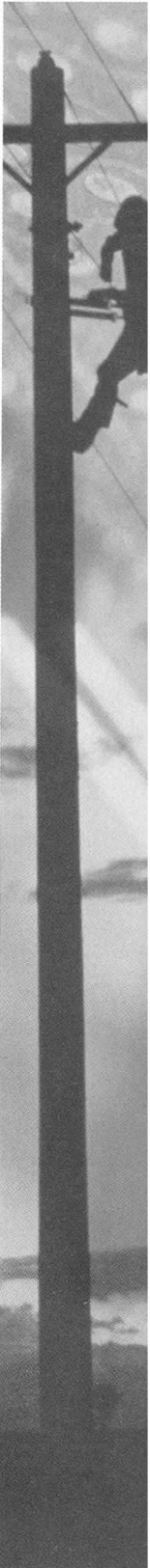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주택용 분전반'의 KS 규격을 개정,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기기 구성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택용 분전반'의 내부 기기 구성이 바뀌게 되면, 누전이나 과부하가 되더라도 해당 선로만 차단되고, 고장선로를 쉽게 찾아 복구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의 주택용 분전반은, 어느 한 전기선로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전기선로를 포함해 집안 전체가 정전이 되고 어느 선로에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하기 어려워 불편이 컸다.
- 개정된 KS규격에서는, 기존에 메인스위치로 누전차단기를, 분기스위치로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해 오던 것을, 각각 메인스위치-배선용차단기, 분기스위치-누전차단기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변경, 문제점을 해결했다.
- 이에 따라 누전 또는 과부하 고장이 발생한 해당 분기스위치(누전차단기)가 일부 전원만 차단, 정전발생구역이 줄어들게 됐다. 또, 누전이 아닌 합선 등 중대한 고장 발생시에만 메인스위치(배선용차단기)가 전체 전원을 차단, 안정적·효율적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ISO 국제표준화 회의 서울서 개최

건축물의 친환경성 · 삶의 질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정한다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 02-509-7291

- “쾌적하고 인간공학적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모든 인류의 꿈인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설계 및 성능 표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 “지속가능한 건축물(ISO TC59/SC17) 국제 표준화회의”를 '07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르네상스 호텔(서울시 역삼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지구촌 환경변화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15개국이 참가하고, 제정되는 국제표준이 자국의 건축물 관련 정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때문에 각국에서는 국제표준에 자국의 기술반영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주로 건축물의 지속성에 대한 일반원칙, 지표, 환경성능평가 방법 등, 특히 건축물의 환경성능 평가기준을 국제표준화하며, 이를 위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CO2, 산성화 등) 및 건축물의 실내환경 요소(냉난방, 조명, 소음 등)의 필수항목 설정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韓電, 최초 해외 수력사업 진출

네팔전력공사와 수력개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문의 |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사업체(02-3456-5631)

- 한국전력(사장 李源杰)은 11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국영회사인 네팔 전력공사와 "네팔 수력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해외 수력사업에 진출하였음.
 - 이번 MOU는 히말라야 만년설로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네팔의 수력개발을 포함한 전력산업 정보 교류, 기술 및 투자협력 등 전력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네팔 수자원부 장관의 한전 방문과 금번 한전 사장의 네팔 정부 답방을 통해 이루어짐.
- 동 서명식에서 이원걸 한전 사장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네팔과 전력산업기술 및 운영 경험이 많은 한국이 전력분야의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발전 사업이외에도 송배전 및 통신 등 전력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자"고 제의하였음
 - 네팔전력공사 Arujun Kumar Karki(아르준 쿠마르 까르끼)사장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전이 네팔에서 수력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네팔 산업발전에 기폭제가 될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네팔 수력개발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 이번 MOU는 네팔전력공사로서는 현재까지 외국기관과 MOU체결 선례가 없는 가운데 최초로 한전과 서명한 사례로, 그동안 축적된 한전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네팔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음.
 - 이를 계기로 네팔 수력개발시장을 선점하고 서남아시아 수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한전 최초 해외 수력사업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한전은 수자원이 풍부한 안나푸르나 계곡의 42mw규모 Upper Modi 'A' 프로젝트 등 2개의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네팔 수력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네팔은 히말라야 만년설로 풍부한 수자원(42,000MW)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개발 잠재량의 약1%(410MW) 정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향후 수력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도 등 이웃나라에 전력수출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전망이 매우 밝음.
 - 또한, 한전은 네팔외에도 파키스탄, 라오스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등 중남미 등과도 활발하게 수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